

북 핵실험은 대미 협상-체제 결속 다목적 카드

북 미사일 핑계 일 군사력 증강?

김정은, 벼랑끝 핵 전술 왜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은 핵실험. 패탄화한 북한의 두 가지 도발엔 전략적 노림수가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엔 김일성 100회 생일(4월 15일)을 맞아 첨단 기술을 과시함으로써 '강성국가'의 이미지를 확립하려는 게 주목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의 '김정일식' 통치술의 연장이다.

김정은은 생전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미국의 핵공격을 막기 위해선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핵억지력'을 강조했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체제 위기에 몰렸지만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 대량살상용 핵무기라는 첨단과학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주민들의 결집과 체제 유지를 노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김정일의 사망으로 권좌를 물려받은 김정은도 그 노선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체제 단속과 권력 안정화를 위해선 선택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이다.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이 지난해 여름부터 미사일 발사를 준비해 왔다"고 본다. 지난달 16일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로켓을 쏘겠다는 발표 이후 20여 일 만에 로켓 발사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도 북한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음을 보여준다. 김정은이 갈아놓은 레일 위에 김정은이 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벼랑 끝 전술' 역시 김정일 때와 같다. 로켓 발사 자체만으로도 국제사회의 우려와 제재가 예상되는데도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것이 그렇다. 고유환 동국대(북한학과) 교수는 "핵 소탕화를 위한 핵실험을 준비함으로써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나 북-미 간 2·29 합의 파기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 제재에 핵실험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산된 행동이란 것이다.

실제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인도주의적 문제는 정치와 연관시키지 않겠다던 미국이 식량지원 공약 이행 중단을 선언한 것은 2·29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도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한·미 당국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미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어 마땅한 추가 제재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은 핵실험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실제로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은폐하기 위한 구실이라는 것을

김일성 100회 생일 앞두고

제재 움직임 미국에 맞불

미사일 함께 오래 준비한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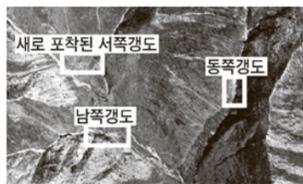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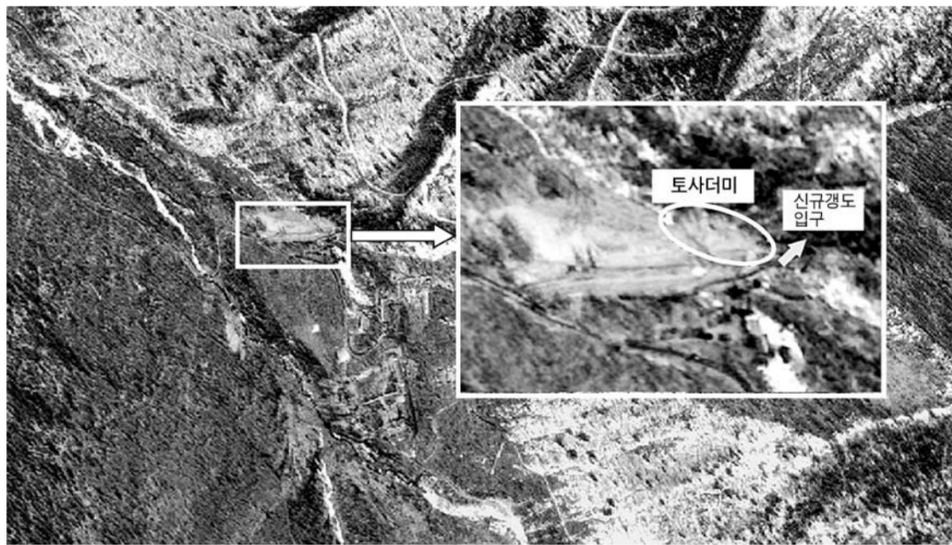
한·미 추가제재 방안 고심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이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남북경협과 대북 지원을 중단한 5·24 조치를 완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적인 반발이 확산될 경우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강행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준비가 돼 있다 해도 핵실험 버튼을 누를 때까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며 북·미 간 극적인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축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특히 장거리 로켓 발사 참관을 위해 CNN 등 외신들의 방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구실로 외신들을 초청해 김일성 100회 생일을 전 세계에서 축하한다는 식으로 선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수·이원진 기자 nkys@joongang.co.kr



북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새 갱도 포착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위한 마지막 준비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미국 상공위성인 '퀵버드'가 지난 1일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북한은 핵실험장에 기존의 2개 갱도 외에 핵실험용 장비 설치를 위한 새로운 갱도를 굴착한 모습이 서쪽 지역에서 포착됐다(왼쪽 사진). 새로 포착된 갱도 부근에 핵실험 때 방사능 등 핵물질의 유출을 막기 위한 갱도 봉인용 토사가 갱도 입구에 쌓여 있는 모습이 보인다(위 사진). [사진 미국 상공위성 퀵버드]

한·중·일, 북 미사일 발사 땀 유엔서 대응책 마련

3국 외교장관 회담서 확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중국의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상은 8일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서 회담을 하고 북한이 로켓(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3국

이 유엔에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회담 후 "김 장관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인 만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제재가 필요하다 점을 중국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부장은 "위성 발사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으며 (위성을) 발사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위성을 발사하면 긴밀히 접촉해 서울·베이징·유엔 3곳에서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이에 대해

"양 부장이 유엔에서의 소통을 거론한 것은 북한의 로켓 발사 강행이 유엔 안보리 결의(1874호) 위반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유엔에서 대응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의 대응 방안에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포함돼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김 장관과 겐바 외상은 이날 오전 3개국 회담에 앞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의 위성 발사 시 양국이 협력해 유엔 안보리를 통해 대응책을 모색하고, 미국과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서울=이원진 기자 chky@joongang.co.kr



김성환 장관 양제츠 부장 겐바 고이치로 외상 외교소식통은 이에 대해

패트리엇 도쿄 배치하자

아사히, 과잉 대응 지적

일본 정부가 북한의 로켓(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다는 명분 아래 과잉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8일 "탄도탄 요격용 패트리엇 미사일(PAC3)이 오키나와(沖縄)의 4곳뿐 아니라 수도권 3곳에 배치된 데 대해 방위성 내부에서도 '북한의 미사일이 수도권에 낙하할 개연성이 없다'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 정부는 최근 PAC3를 도쿄 이치가야(市ヶ谷)의 방위성 청사 앞과 나라시노(習志野)·아사카(朝霞)의 자위대 기지에 배치했다.

신문은 "발사 궤도에 가까운 규슈(九州) 쪽에 배치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2009년의 전례(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답습해 수도권에 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2009년 당시 북한은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번에는 서해에서 남쪽으로 발사하는 것이라 도쿄 도심과는 관계가 없다"며 "군사력 증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전시용' 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 정부는 또 오키나와 본섬에서 멀리 떨어진 미야코지마(宮古島)와 이시가키지마(石垣島), 오나구니지마(與那國島) 등 사키시마제도(先島諸島)에도 약 700명의 자위대를 파견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오키나와 주변에 이 정도의 대규모 자위대 부대를 배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와타나베 슈(渡邊周) 방위성 부상은 7일 "자위대 시설 밖에도 처음으로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제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직원모집공고

제약 및 의료기기, 병원 등에 종사하신분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실분을 찾습니다.

- 다 음 -

- 1. 채용분야 :** 영업관리 및 영업간부, 무역부
- 2. 채용인원 :** 00명
- 3. 채용조건**
- 명예퇴직하신분이나 간부급으로 종사하신 분(제약회사)
- 4.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오전 8:30~오후 6:30, 월~금(주5일제)
- 급 여 : 연봉 4,000만원이상
- 5. 접수기간 :** 2012년 4월9일부터 4월 13일(금) 까지
- 6. 접수방법**
우편접수 및 메일 (sjw@insungmedical.co.kr)
서울시 중랑구 면목 5동 162-59
- 7. 당사홈페이지 :** www.insungmedical.co.kr

인성메디칼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2013) 예술감독 채용 공고

(재)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2013) 예술감독을 공개모집합니다.

2012년 4월 9일

(재)안양문화예술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 1. 공모 개요**
가. 모집인원 : 예술감독 1인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 자격요건 : 안양문화예술재단 인사 규정 결정사유가 없고,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예술분야 10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국제행사를 기획한 경험이 있는 자
○ 예술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국제행사 큐레이터 또는 예술감독 경험이 있는 자
라. 보수 및 근무형태 : 협의 및 계약에 따름
- 2. 전형 방법 :** 서류전형 선정자에 한해 제1차면담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 결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제1차면담 : 「APAP 2013」 기본구상 제안(20분 내외 프리젠테이션 / ※소정의 준비 비용 지급)
- 3.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소정 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 4. 원서교부·접수**
가. 기간 : 2012. 4월 9일 ~ 4월 23일 18:00시까지(15일간)
나. 교부·접수처 : 안양문화예술재단 행정지원팀
○ 응시원서 양식은 안양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www.ayac.or.kr)에서 다운로드
○ 방문접수(대리인 접수가능) 및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함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36 안양문화예술재단, 우 430-018)
- 5. 1차 합격자 발표 및 2차 제1차면담**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2. 4. 27
나. 2차 제1차면담 : 2012. 5. 14
※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서류전형(1차 심사) 및 제1차면담(2차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안양문화예술재단 행정지원팀(☎ 031-687-0512)으로 문의

「콘도」반값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최저가격」에 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등기제)매각금액 (단위:만원)			
콘도명	사 용 체 인	면 적	최종분양 매각금액
한화콘도	설악, 용인, 양평, 산정호수,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수안보, 대전, 제주, 휘닉스파크스키장	해밀리형 방2개	2,280 1,180
대명콘도	홍천스키장, 설악, 양평, 단양팔경, 경주, 양양솔비치, 제주, 변산	해밀리형 방1개 스위트형 방2개	2,330 1,380 3,310 2,280
금호리조트	설악, 제주, 충무, 화순 (경주, 양산, 청평, 해운대, 강촌, 성우스키장)	52㎡ 방1개 89㎡ 방2개	1,890 880 2,700 1,350
일성콘도	무주, 설악, 여주, 제주, 부곡, 경주, 지리산 (도고, 충주, 청평, 양지리조트, 성우리조트, 먹구운천)	62㎡ 방1개 85㎡ 방2개 99㎡ 방2개	1,730 580 2,362 780 2,675 880
글로벌콘도	부산해운대, 도고운천(양평, 남한강, 충주, 단양, 강촌, 설악, 경주, 충무, 지리산, 화순, 제주, 홍천스키장)	42㎡ 원룸 52㎡ 방1개 89㎡ 방2개	712 380 875 480 1,458 680
켄싱턴리조트	설악, 동해비치, 충주돈산온천, 경주, 제주, 지리산 (해운대, 도고, 기흥, 충무, 화순, 춘천, 정선)	69㎡ 방1개 85㎡ 방2개 102㎡ 방2개	1,550 580 1,980 780 2,120 880

콘도회원권 전문업체 동양레저타운 문의: (055)296-8949 296-8950 296-895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21-18 경성빌딩 3층